

사회

# 둥지 잃은 신안 바다새

## 바다제비 전 세계 개체군 90% 12만쌍 서식 '철새 정거장' 흑산도 일대 외래종 차단 시급

바다제비를 비롯한 국내 최대 바다새 번식지인 신안군 칠발도와 구굴도 등 4개 무인도에 쥐와 쇠무릎 등 외래 동식물이 침입, 서식지 파괴와 개체 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한 '철새들의 정거장' 흑산도 일대를 비롯 바다새 서식지의 조류생태계 보전을 위한 외래종 침입 차단 등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구굴도와 소구굴도, 칠발도, 개린도 등 신안군 소속 4개 무인도에서는 바다제비가 12만쌍 가까이 번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개체군의 90%를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신안군이 최근 2년 동안 칠발도와 구굴도에 방형구를 설치해 외래종과 바다제비의 번식 관계를 조사한 결과, 외래식물인 쇠무릎 등이 칠발도를 비롯한 4개 섬에 급속히 퍼지

면서 바다제비의 번식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대양성 바다새인 바다제비는 지표면에 굴을 파거나 바위에 둥지를 틀고 여름에 한 개의 알을 낳는데, 토종식물인 밀사초 아래 토양에 분포하는 둥지가 전체의 84%(69개)를 차지해 산란에는 토양과의 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좁쌀호 토양에 붙어 자라는 쇠무릎이 확산되면서 지표면에 굴을 파고 산란하는 바다제비의 산란환경을 파괴, 이들이 밀생한 지역에서는 둥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쇠무릎의 열매와 바다제비 알개가 엉켜 죽은 바다제비도 단 3일 동안 76마리나 관찰됐다. 쇠무릎의 열매는 갈고리처럼 생겨 바다에서 활공비행에 사용하는 바다제비의 긴 날개를 엉키게 만든다. 쇠무릎은 20세기 초 칠발도 등대 건설과 1980년대까지의 염소 방목 등을 통해 외래종이 침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또한 흑산면 가거도에 떨어진 무인도 서인 구굴도와 개린도 등의 바다제비 알은 매년 전체의 20% 가까이 쥐에 의해 포식돼 번식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개린도에 방목된 염소도 바다제비 번식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4개 섬은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특정도서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미 유입된 외래 동·식물이 바다새의 번식지를 위협하거나 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 녹색성장지원단 이경규씨(철새관리담당)는 "바다제비 최대 번식지가 외래종의 침입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쇠무릎 등 바다새 번식과 서식에 악영향을 끼치는 외래종 차단과 제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센터는 오는 25일 신안군과 공동으로 국제 철새 심포지엄을 열고, 외래 동·식물 유입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조류 생태계 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청소년 흡연 예방” 광주·전남지역 담배판매인조합 250명이 23일 광주시 동구 금남근린공원 앞에서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전남 성폭력 하루 평균 3건

### 피해자 3명 중 1명 청소년...매년 증가 광주 북구지역 청소년 피해 전국 최대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3건 가량 발생했으며, 성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 북부경찰서 관할지역은 전국 경찰서 중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남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절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3일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의 성폭력 사건은 모두 516건으로, 하루 평

균 2.87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162건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성폭력 3건 중 1건 가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북부서 관할지역에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북부서는 올 상반기에만 44건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전국 244개 일선 경찰서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찰서별 청소년 성폭력 건수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전남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118건에 달하면서 전체 성폭력(268건)의 4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 등 전국의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할 경찰서의 방범활동 강화와 경찰청장 인력 배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7911) 김장동



### 버스·화물차 충돌 5명 사상

23일 오전 11시께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관음삼거리 교차로에서 박모(46)씨가 몰던 군내버스와 정모(59)씨의 1t 화물차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모(여·57)씨가 사망하고 군내버스 승객 정모(59)씨와 김모(여·28)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제 버릇” 8·15 특사 643명 또 증주

○8·15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면받은 운전자 643명이 사면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경찰의 음주단속에 다시 적발된 것으로 확인.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15 특사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면제받거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해제된 26만7천219명 중 643명이 사면 당일에서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집계.

○특히 17명은 사면 당일인 8월 15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에도 하루에 20여명씩 음주단속에 걸려 사면 후 일주일간 단속된 운전자는 139명에 달했다고.

/연합뉴스

### 신안에 ‘도요물떼새 종 네트워크 한국사무국’

#### 국제교류 등 담당

신안군에 ‘도요 물떼새 종 네트워크 한국 사무국’이 설치된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부터 환경부 산하 국가습지보전사업단이 도요 물떼새와 관련된 전국 민간단체와 정부 기관, 학계 등 50여개 단체 100여명이 참가한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한국 사무국 유지가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철새와 관련된 사무국을 유지하기는 신안군이 처음이다.

한국 사무국 인증식은 오는 2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릴 ‘2009 국제철새심포지엄’ 사전 행사로 진행되며, 환경부는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항만 보상금 이중 수령

#### 목포해경, 어민 45명 조사

목포해양경찰청은 23일 거역의 항만 개발 보상금을 이중으로 받아낸 진도군 모 어촌계장 이모(40)씨 등 어민 45명을 공익사업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께 12명이 진도군 팽목항 개발에 따른 면허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금 5억원을 우선 받고 두 달 뒤 나머지 33명이 다시 가계보조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수령 보상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공무원 및 보상금 계자와의 결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성매매·회식 비용 강요 의혹

#### 前 전남대병원 교수 곧 사법처리

#### 경찰, 대남 사실 확인

광주지방경찰청은 전공의들에게 회식비와 성매매 비용을 대신 내게한 의혹을 받고 있는 前 전남대병원 A교수에 대해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A교수가 수시로 회식비를 대납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A교수가 처방전

없이 임의로 고가의 주사제를 처방한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전공의 가족이 폭로한 성매매 비용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였으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최근 한 전공의 가족이 회식비 및 성매매 비용 대납 의혹을 폭로하자 사직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 12억원대 취업사기 행각

#### 한나라당 전 간부 7년형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23일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인당 수천만원의 앞산·사레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남도당 전 간부 원모(6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26명에 총 8억5천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등 죄질이 불량하고 12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Advertisement for 'Big Mountain' (大山프리모닝)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남성 헤어 기능장 1호', '타사제품 보상판매', 'SBS-KBC '사람세상' 방영', '조슬림!!', '50만원~'.

Advertisement for 'Indian Aollet' (인디안아올렛) featuring a man and a woman, with text: '인디안아올렛 새단장 OPEN', '70~50%', '정상·상설복합 매장 주일용 빅마트 열', '구매고객께 사은품 증정!', '0621654-7205'.